



삼성전자는 9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2023년형 TV 신제품을 공개하고 국내에 공식 출시를 알렸다.



/삼성전자

# 삼성, 10년만에 OLED TV 시장 귀환... LG 정면승부 예고

## SAMSUNG

삼성전자가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내세워 세계 1위 위상을 공고히 다진다. 편의기능과 초연결성을 확대함은 물론, OLED 라인업을 새로 추가하면서 더 다양한 소비자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OLED TV를 국내에 재출시한 만큼 LG전자가 선점한 OLED 시장에서 정면 승부는 불가피해졌다.

**QLED 중심 소비자 선택폭 넓혀 98형 추가... 거거익선 트렌드 반영 OLED 제품 밝기·선명도·정확도 ↑**

삼성전자는 9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2023년형 TV 신제품을 공개하고 국내에 공식 출시를 알렸다.

신형 TV 라인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OLED TV다. 지난해 글로벌 출시에 이어 올해는 국내서 확대한다. 2013년 처음 OLED TV를 내놓은지 10년만이다. 한동안 수익성과 함께 상품성 한계를 이유로 OLED를 내놓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시장이 성장하고 기술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면서 상용화로 입장을 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OLED는 77형과 65형, 55형 등 3종으로 출시된다. 게이밍 모니터인 오디세이에도 OLED를 적용한다. 네오 QLED G9는 32대9 비율에 1800R 곡률, 240Hz 주사율을 내는 세계 최초 49형 OLED 제품이다.

삼성 OLED는 밝기를 높이는 'OLED 브라이트니스 부스터'에 더해 '퀀텀 HDR OLED+' 기능으로 선명도를 높였다. HDR10+와 퀀텀 인증 컬러 매핑 기술로 선명도와 정확도를 높였다. '돌비 애트모스'로 입체적인 사운드도 구현 가능하다. QLED TV에서도 적용됐던 뉴럴 AI 퀀텀 프로세서 4K로 업스케일링과 화질 최적화 기능도 유지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 '대세'로 떠오른 OLED 라인업을 추가하며 선택 폭을 넓히긴 했지만, 여전히 중심에는 QLED를 두는 모습이다.

마이크로 LED를 장착한 네오 QLED는 지난해보다 라인업을 1개 많은 7개로 늘렸다. 모델 숫자도 크기와 성능 별로 28개에 달한다. 8K 제품은 65형과 75형 85형 등 3개 크기로, 4K는 43형부터 85형까지다. 85형을 기준으로 8K는

1570만원, 4K는 949만원이다.

'거거익선'(巨巨益善, 클수록 좋다) 트렌드도 따른다. 네오 QLED 8K에 98형을 추가하고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 출고가는 1270만원으로 책정했다.

삼성전자는 신형 TV 라인업을 상향 평준화된 화질보다는 편의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네오 QLED 8K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64개로 업그레이드 한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로 업스케일링과 명암비 강화 등 화질 개선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계승·발전했다.

우선 연결성이 극대화됐다. Matter 등 다양한 IoT 표준을 지원하는 원칩 모듈로 지그비를 비롯한 여러 프로토콜을 활용해 스마트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다. 기기를 등록하면 목록뿐 아니라 3D 공간으로 위치까지 재현하는 '3D 맵 뷰'로 TV를 스마트홈 중심 기기로 탈바꿈시켰다.

새로운 콘텐츠도 추가한다. 방송을 보며 채팅을 하는 라이브 채팅은 물론, 화상 통화를 하는 '커넥타임'과 함께 비대면 화상 진료를 할 수 있는 '굿닥'도 제공한다. 커넥타임은 오는 5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으로, 추후 통화를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어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더하기로 했다. 삼성 TV 플러스도 꾸준히 채널을 더하고 있다.

게이밍 허브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게임 조준선을 따로 설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모니터에 미니맵 등 정보를 따로 출력할 수도 있도록 했다.

**원칩 모듈로 스마트기기 연결 커넥타임, 굿닥 등 콘텐츠 추가 "최상의 스크린 경험 제공할 것"**

앞서 진행된 삼성전자 2023년 TV 사전 예약판매는 1200여대를 돌파해 지난해 예약판매 실적을 넘어섰다.

전체 예약판매에서 네오 QLED와 OLED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80%, 20%다. 최근 뚜렷한 대형 TV 선호 현상을 반영한 듯 75형 이상 초대형 제품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올해 새로 출시하는 OLED 중에서도 77형이 65% 이상을 차지했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전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Neo QLED 8K는 2023년 한층 강화된 성능으로 새로운 시청 경험을 선사하고, 삼성 TV의 기술력이 완

성한 OLED도 처음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며 "2023년형 TV 신제품은 풍성한 혜택과 함께 고객들에게 최상의 스크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OLED TV 시장은 LG전

자가 선점하고 있다. 음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LG전자는 60%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우위를 달렸다.

LG전자는 전날 TV 신제품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OLED 출시를 환영한다며

맞대결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